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3.379>

JCCT 2024-5-44

## 한국 사회에 영향을 준 서양 춤(Dance Sports, 사교Dance)의 사적(史的) 경로에 관한 소고(小考)

### A Study on the Historical Path of Dance Sports Influencing Korean Society

김청열\*

Cheong-Yeoul Kim\*

**요약** 유교문화를 가진 한국사회의 서양 춤(Dance Sports, Social Dance)이 과거의 사교댄스 이름으로 도입되었던 최초 배경을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전쟁 이전 사교댄스의 보급 경위와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를 중심으로 사교댄스 열풍이 일었던 경로와 6·25전쟁 직후의 퇴폐풍조 등 당시의 춤바람 사회 단면을 알아보고, 부정적 문화현상으로 변천되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사회적 배경과 함께 재조명 해 보았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낯설지 않은 문장이 될 정도로 사교 Dance와 Dance Sports는 한국 사회에서 크나큰 인식변화를 거치며 삶에서 뺄 수 없는 하나의 요소가 되었다. 댄스스포츠(Dancesport)는 댄스(Dance)와 스포츠(Sport)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 예술적 실내 스포츠라고 하며 현재 근대 예술적 요소를 포함한 한국 사회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가를 연구를 했다.

**주요어** : 유교문화, 사교댄스, 한국전쟁, 부정적 문화현상, 예술적 요소

**Abstract** We looked at the background of how Western dance (Dance Sports, Social Dance) was first introduced as social dance in the past in Korean society with Confucian culture. In addition, we look into the social aspects of dance at the time, such as the spread of social dancing before the Korean War, the path through which the social dancing craze developed in the 1950s after the Korean War, and the decadent trend immediately after the Korean War, and how it transformed into a negative cultural phenomenon. We reexamined the series of events along with their social background. And now, social dance and dance sports have undergone such a significant change in perception in Korean society that they have become an indispensable element of life, to the point where the sentence is no longer unfamiliar in our country. Dancesport is an artistic indoor sport that combines elements of dance and sport. We also studied what changes have occurred in Korean society, including modern artistic elements.

**Key words** : Confucian culture, social dance, Korean War, negative cultural phenomena, artistic elements

\*정회원, 전 동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제1저자)  
접수일: 2024년 3월 6일, 수정완료일: 2024년 4월 19일  
게재확정일: 2024년 4월 30일

Received: March 6, 2024 / Revised: April 19, 2024

Accepted: April 30, 2024

\*Corresponding Author: cykim1239@tu.ac.kr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Tongmyong Univ, Korea

## I. 서론

서양 춤(Dance Sports, 사교 Dance)은 일반적으로 대중 춤으로 알려진 사교댄스(Social Dance)와 Dance Sports를 지칭이 되겠다.

Dance Sports는 전 세계 몇 가지 춤 체계화·통일시켜 만들어진 춤이며, 사교 Dance는 미국 춤 자이브에서 6박자를 살려서 변형된 우리나라 춤이라는 통칭이다.

서양 춤춘다고 하면 사교댄스를 먼저 연상한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Dance Sports보다 사교댄스(Social Dance)가 세간에 많이 더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저변 인구도 더 넓고 숫자도 더 많다.

사교댄스(Social Dance)는 한국전쟁 때 미군이 들어와서 댄스 문화가 번지기 시작했다. 전쟁 직후에는 춤으로 바람을 피운다는 내용의 정비석의 연재 소설 자유부인이 장안의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다음 해에 춤으로 수 많은 여인들을 농락한 박인수 사건으로 춤이 더 유명해졌다. 이후 1960년대 박정희 정부는 서양 춤을 사회악으로 다루면서 댄스 문화가 지하로 숨어들며 질곡의 역사 속에 어두운 시절을 보냈다. 1970년대 중동 건설 붐이 한창일 때, 남자들은 열사의 사막에서 일하며 돈을 벌 때 일부 아내들이 물의를 일으켰다. 댄스홀에서 만난 남자와 불륜을 저지른다며 또 한 번 세인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건이 벌어져 댄스에 대한 이미지를 안 좋게 보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다가 댄스스포츠가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댄스 자체가 이미지를 쇠신하며 건전한 생활체육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댄스스포츠의 저변 인구가 폭증하고, 사교댄스도 더불어 양지로 나오며 시민 교양 내지는 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양상에서 본 연구는 서양 춤(Dance Sports, Social Dance)이 한국전쟁 이전 이후 사교댄스(Social dance)로서 사회적 배경과 관련하여 대중문화의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서양 춤(Dance Sports, Social Dance)이 고급 사교 문화로서 수용되었던 최초 도입기부터 한국전쟁 이후 대중화가 시작되었던 시기에 부정적인 대중문화로 변모되었던 변천양상을 1950년대를 중심으로 사교댄스 열풍이 일었던 경위를 알아본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서양 춤(Dance Sports, Social Dance)이 경기 스포츠가 되기 이전 대중문화로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또 현재 근대 예

술적 요소를 포함한 경기 스포츠로서의 운동성이 무엇이며 한국 사회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가를 연구 하는데 본 논문의 목적이다.

## II. 이론적 배경

### 2.1 정의

Dance Sports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영국 상류층 사람들이 사교 모임 때 추던 사교댄스 즉, 큰방(Ballroom)에서 춤(Dance)을 춘다는 의미를 가진 볼룸댄스(Ballroom Dance)에 그 기원을 두며 점차 스포츠 요소가 가미된 지금의 댄스스포츠로 발전되어 왔다.

사교댄스(Social Dance)가 본격적으로 유입된 것은 해방 이후 미군정이 시작되면서부터이다. 미군들과의 사교적 목적에서 이들과 접촉이 빈번한 일부 계층에 의해 사교춤이라고 불리는 사교댄스가 도입되었던 것이다. 미국 군인들의 영향을 받아 서양 춤을 다른 문화의 경우와 같이 무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으며 자유당 시대를 거치면서 고위 장성급 모임에서는 사교 댄스 파티가 건전하게 부부 동반으로 행해지곤 하였다.

### 2.2 선행연구

서양 춤(Dance Sports, Social Dance)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한국전쟁과 관련한 사교댄스의 사적(史的) 연구는 다음과 같다.

1) 김해연(2001) 한국 댄스스포츠 변천사: 이 연구는 댄스스포츠의 배경, 한국 댄스스포츠의 발달, 국내 댄스스포츠계의 변천에 대한 내용을 연구한 논문으로 댄스스포츠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댄스스포츠의 발달, 댄스스포츠 도입과정에서 구한말 일제 통치 아래 도입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정확한 근거자료가 부족하였다. 또한 “한국전쟁 이후 사교댄스가 유행되기 시작하며 그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자료도 미비하며, 도입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았다.

2) 윤선자(2005). 서양의 볼룸댄스가 일상적이고 건전한 사교 문화인 반면 한국의 사교댄스는 ‘탈선, 춤바람, 불륜, 가정파탄’의 수식어를 연상시킬 만큼 부정적

인 문화로 조명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에는 사교댄스가 부정적이고, 불건전한 문화가 된 데에는 사회적 상황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1950년대 사교댄스는 소설 '자유부인'과 연관되어 여성의 도덕적 일탈의 상징으로 간주 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수많은 사회문제를 만들었다. 예를 들면 '박인수 사건' 등 세간을 뒤흔든 사건의 핵심에 사교댄스가 놓여 있었으며, 당시 사교댄스는 시대적 현상이었고 문화적 초점(cultural focus)이었다.

3) 김용재(2008). 한국 댄스스포츠의 변천사: 이 연구는 해방 이전과 해방 이후의 한국 댄스스포츠의 변천을 연구하는 논문으로 한국 댄스스포츠의 도입, 발달과정을 연구하였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해방 이후 1950년대 자료가 미비하다. "1950년대에 비밀댄스 교습소로 인한 사회문제가 성토되었으며, 댄스스포츠가 생활체육으로 이전까지는 퇴폐적이며 향락적으로 평가된바 있다"고 보았으나 어떤 계기로 인하여 이와같이 평가되고 있는지에 관한 정확한 관련 근거와 자료가 미비하다.

4) 이경숙(2012). 우리나라 댄스스포츠 담론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댄스스포츠 담론에 관한 연구로서 우리나라 안에 자리 잡고있는 댄스스포츠의 담론과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변화된 양상을 문학적 담론을 통해 연구한 논문이다. 그러나 댄스스포츠에 대한 역사적 사건들은 언급되고 있으나 자세한 설명과 내용이 미비하다.

5) 한혜원(2001). 댄스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연구: 댄스스포츠는 유산소성 운동으로 그 효과성이 인정되면서(Alex Moore, 1999) 1995년 문화관광부가 여가의 한 종목으로 분류한 이후 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시범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여가 혹은 스포츠연구자들의 신체활동을 통한 여가 활동에 참여하는 유형과 정도에 관한 연구는 다수가 발표되었다(최혜련, 최장호, 2012; 김현국, 박영순, 송영명, 2010; 안병욱, 임영삼, 2010; 송홍락, 2007).

6) 배소심과 오현옥(2005)는 댄스스포츠의 특징: 이성과의 짝을 이루어 춤을 춤으로서 건전한 사교의 장소에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 맞춰 리듬감 있는 신체 발

달을 추구하는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7) 김대훈(2011). 댄스스포츠 참여와 사회성과 여가 만족의 관계: 댄스스포츠의 참여는 사회성 개발과 여가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8) 이인정(2016).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는 사교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던 시기로 보급과정에서 대한민국 사회의 윤리와 대립하면서 여러 가지로 문화·사회적 쟁점을 형성하였다. 이에 정부는 사교댄스를 풍기문란으로 보고 사회정화 명분으로 대대적 탄압을 받게 되었고, 줄곧 스포츠가 아닌 불륜의 대명사로 인식되었다.

위와 같이 선행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 서양 춤(Dance Sports, Social Dance)에 대한 도입과정, 댄스스포츠 참여와 사회성, 댄스스포츠의 특징 등이 언급되고 있지만, 서양 춤(Dance Sports, Social Dance)이 구체적인 도입과정과 부정적인 대중문화로서 인식되었던 관련사건에 대한 내용이 미비하다.

### 2.3 서양 춤(Social Dance, Dance Sports)의 형태

서양 춤(Dance Sports, 사교 Dance)은 텐션(Tension)을 이용하여 추는 것이다. 박자 내에서 돌아서 들어오는 그대로 오는 돌이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양 춤은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이므로 댄스스포츠나 사교댄스 모두 공통분모는 많다. 왈츠(waltz) 같은 모던 댄스 쪽은 공간을 넓게 써야 하기 때문에 체육관이나 전문 무도장, 호텔 그랜드 볼룸을 이용한다. 공간이 넓은 대형 콜라텍에서는 댄스스포츠와 사교댄스 추는 공간을 구분해서 병행하기도 한다. 또 사교 Dance의 지르박(Jitterbug)은 기본이 되는 운동이며 왈츠(waltz)는 모던 댄스의 기본이 되는 종목이다.

#### 2.3.1 사교댄스(Social Dance)

사교댄스(Social Dance)는 댄스스포츠의 자이브에서 6박자를 살려서 만든 우리나라 춤이다. 지르박(Jitterbug)과 도롯도(Dorotdo)와 블루스(blues)가 주 종목이다. 초창기 도입할 때 우리나라 여성들은 요즘처럼 활동적이거나 외향적인 사람이 적었다. 그래서 여성의 스텝은 어렵지 않으나 주로 남성이 다양한 스텝을 구사

하며 추는 춤이다. 그래서 남성 스텝이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널리 활용되는 춤은 지르박, 도롯도, 블루스이다.

1) 지르박(Jitterbug)

사교댄스로 가장 많이 추는 춤이다. 지르박은 193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유행한 사교춤으로, 4분의 4박자의 속도에 맞추어 남녀가 다가서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자유로운 동작을 가미한 것이 특징이 있으며 또 스윙 음악에 맞추어 추며, 삼각 스텝, 일자 스텝, 회전, 목감기 등 다양한 스텝과 피겨를 사용한다. 지르박(Jitterbug)을 배우려면 남녀의 기본 스텝과 리드와 팔로우의 기술이 필요하다.

2) 도롯도(Dorotdo Dance)

도롯도(Dorotdo Dance)는 트로트(trot) 음악에 맞추어 추는 춤입니다. 도롯도는 남녀가 서로 마주 보고 손을 잡고, 발을 두 번 떼고 한 번 짚는 2-1 스텝을 기본으로 합니다. 도롯도는 간단하고 쉬운 춤이지만, 재미있고 활기찬 춤입니다. 도롯도를 배우려면 남녀의 기본 스텝과 리드와 팔로우(follow: 뒤를 따라가다)의 기술이 필요하다.

3) 블루스(blues)

느리고 슬픈 노래의 춤(slowdance)이며 부루스 춤은 남녀가 서로 마주 보고 손을 잡고, 발을 두 번 떼고 한 번 짚는 2-1 스텝을 기본으로 합니다. 부루스 춤은 간단하고 쉬운 춤이지만, 재미있고 활기찬 춤입니다. 부루스 춤은 원래의 이름이 블루스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부루스라고 불리고 있다.

2.3.2 Dance Sports

댄스스포츠는 100여년 전에 영국에서 만들어졌다. 나라마다 지방마다 다른 전 세계 몇 가지 춤을 체계화하며 통일시킨 춤이다. 볼룸댄스로 불리는 왈츠를 비롯하여, 탱고, 폭스트롯, 퀵스텝, 비에니즈 왈츠를 먼저 체계화시키고, 뒤이어 라틴댄스로 불리는 룸바, 차차차, 삼바, 파소도블레, 자이브를 체계화시켰다. 초급 과정부터 고급 과정까지 스텝과 피겨가 잘 정리되어 있다.

표-1. 라틴댄스(Latin Dance)와 스탠더드 댄스(Standard Dance)  
Table-1. Latin Dance and Standard Dance

라틴댄스(Latin Dance)	
Dance	국가 명
①자이브(jive)	미국
②룸바(rumba)	큐바
③차차차(cha cha cha)	큐바
④삼바(samba)	브라질
⑤파소도블레(paso doble)	스페인

  

스탠더드 댄스(Standard Dance)=모던 댄스	
Dance	국가 명
⑥왈츠(waltz)	독일
⑦탱고(tango)	아르헨티나
⑧퀵스텝(quick step)	미국
⑨폭스트롯(fox-trot)	미국
⑩빈왈츠(viennese waltz)	독일

1) 자이브(jive)

스윙 댄스에서 발전되었으며, 익살스럽고 우스꽝스럽게 추는 4/4박자 빠른 템포의 춤이다. 흑인의 춤에서 발생한 지르박(Jitterbug)의 원형. 로큰롤, 디스코 등 폭넓은 리듬에 적용되고 있으며 다른 춤처럼 체계가 잡힌 춤이 아니다. 미국에서 유행하던 여러 가지 춤을 다른 춤에서 채용하는 사쎬(Chasse)라는 스텝을 넣어 그런대로 정형화했는 춤이다. 기본 스텝으로 25개를 겨우 만 들고 그것만으로 출 수 있는 피겨는 15개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는 4/4박자를 활용해서 만들어 찼다. 우리나라에 들어 온 자이브 스텝은 도입 초기 일본에서 공부해서 들여온 62가지 피겨가 대중적으로 보급되었고 그 후 응용 스텝이 추가되면서 100가지가 넘는다.

피겨 이름도 영어라서 발음도 어렵고 길어서 강습 때는 번호로 통한다.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추세요”가 통하는 것이다. 경기 댄스 자이브는 스텝이 자유분방하다. 매뉴얼에도 없는 스텝을 자유롭게 구사한다. 교본에 있는 기본 스텝인 사쎬를 굳이 할 필요도 없다. 아이들 춤처럼 웨이브도 하고 그냥 발차기 같은 동작도 있다. 경합의 부담감을 떨쳐 버리고 마음껏 끼를 발산하라는 것이다.

2) 룸바(rumba)

룸바는 원래 ‘사랑의 춤’이다. 남녀의 부드럽고 아름다운 춤사위로 사랑의 춤이라고 불리는 라틴댄스 중 가장 느린 템포의 4/4박자 춤이다. 여성 댄서의 여성다운 춤사위가 매우 아름답다. 자이브나 차차차는 빠른 템포

이기 때문에 춤추기 바쁘다. 그러나 롬바는 느린 템포이기 때문에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이다. 롬바의 특징은 힙 무브먼트가 있는 것이다. 남성, 여성 모두 힙을 뒤틀면서 추는 춤이다. 사람의 중심이 골반이다.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중요 부위가 있는 곳이다. 골반을 묘한 음악에 맞춰 꿈틀거리니 보기에 에로틱한 것이다. 초·중급 과정에서는 표준 피겨는 그런대로 무난하다. 그런데 선수들이 경기 대회에서 추는 베리에이션 피겨는 본격적으로 섹스어필하는 동작이 많다. 노골적으로 상대를 유혹하는 동작이 많이 들어 있다. 동호인 또는 운동 삼아 춤을 배우러 왔다가 이런 피겨를 대하게 되면 당혹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문화이자 연기로 받아들여야 된다.

### 3) 차차차(cha chacha)

차차차는 쿠바에서 유래된 춤으로, 맘보(Mambo)가 발전한 춤이라고 합니다. 이 춤은 강약이 반복되는 라틴댄스로 1950년대 느린 맘보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며 음악은 1949년 쿠바의 바이올린 연주자가 뉴욕에서 발표하여 처음 세상에 알려졌으며 춤의 중요성은 발(Foot)의 움직임이다. 그 이유는 롬바만큼 음악의 템포가 느리지 않기 때문에 힙(Hip)을 통한 체중의 이동을 자세하게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이다. 차차차라는 이름은 춤을 추는 소리나 타악기의 소리에서 비롯되었다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차차차(cha chacha)는 라틴댄스의 한 종류로, 4/4박자의 빠른 리듬과 특유의 힙 무브먼트(웅덩이·몸·신체 부위의 움직임)가 특징이다.

### 4) 삼바(samba)

정열적인 리듬 속 생동감 화려한 축제의 춤으로써 3가지의 바운스(발목, 무릎, 힙)를 사용하여 추는 2/4박자 춤이다. 삼바도 표준 피겨에서는 서로 떨어져서 추기 때문에 무난해 보이지만, ‘내추럴 롤(Natural Roll)’, ‘리버스 롤(Reverse Roll)’이라는 피겨가 있다. 말 그대로 몸을 돌이 말듯이 겹치는 동작이다. 내추럴 롤은 먼저 남성이 상체를 뒤로 젖히면서 오른쪽 다리를 여성 다리 사이에 깊이 집어넣고 여성은 하체를 반대로 뒤로 빼면서 오른쪽으로 돈다. 그다음은 여성이 같은 동작을 하는 피겨다. 리버스 롤은 남성이 여성의 뒤에 붙어 같이 힙을 돌리면서 추는 동작이다. 가장 야한 피겨다. 힙을 과감하게 많이 움직인다 보니 가만히 서서 추는 동

작보다 야하게 보인다.

### 5) 파소도블레(pasodoble)

파소도블레(스페인어:Pasodoble)는스페인의 투우사의 용맹한 모습을 따라 투우하는 모습을 춤으로 표현하는 전통춤의 일종이다. 남녀가 짝을 지어 8분의 6박자라는 빠른 템포에 맞춰 1분에 약 120번 스텝을 밟는다. 남자는투우사의 역할을 하고 여자는 황소나 투우사의 빨간 망토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붉은 색 의상을 주로 입는다. 일반적으로 투우장에서 행진곡으로 연주되기도 하는 춤이다.

### 6) 왈츠(Waltz)

왈츠는 기본적으로 상승(rise)과 하강(fall)을 강조하는 기품 있고 아주 우아한 춤이며 첫번째 박자에 강한 액센트를 주어야 된다. 모던댄스의 기본이 되는 종목이며 독특하게 3/4박자의 춤이다. 3박자의 스텝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낯설고 덜 익숙한 편이다. 우아한 움직임과 빠른 회전을 동시에 보여주고 타인에 대한 인격 존중과 인성과 덕성을 고양하고 관용과 책임감을 함양하는 춤이며, 과도치듯이 물 흐르듯이 추는 모든 댄서의 가장 기본적인 3/4박자의 춤이다. 우리나라 거의 모든 가요가 4/4박자다. 팔다리가 2개씩이라 걷는 것부터 4박자다. 그렇게 4박자 음악에 거의 익숙해 있다가 느린 3박자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한다.왈츠는 파도가 너울대듯 잔잔함의 춤이며 음악도 감미로움, 우아함, 느긋함, 힐링이 느껴지게 한다. 백조의 춤처럼 몸은 움직임이 빠르지는 않지만 발은 3박자에 맞춰 열심히 움직이며 온몸으로 추는 춤의 요소가 파트너와 적당한 밀착 홀드로 절묘한 스킨십의 과학이 담겨 있는 춤이다. 또 왈츠에서는 ‘오버 스웨이(Over Sway)’ 동작이 아름답지만, 그나마 좀 에로틱한 분위기라고 볼 수 있다. 여성이 남성에 의지하여 몸을 뒤로 많이 젖히는 동작이 많은 댄스이며 남성이 왼쪽 무릎으로 여성을 받쳐 주고 오른팔로는 여성을 안전하게 잡아 쥐야 하는 동작이므로 밀착도가 높은 동작이다. 비슷한 피겨로 ‘콘트라 체크(Contra Check)’ 동작이 있다. 남성의 왼쪽 다리가 여성의 다리 사이로 깊이 들어가고 여성은 뒤로 몸을 젖히는 동작이다. 그러나 모던 댄스는 여성의 드레스가 풍성하기 때문에 피부가 느끼는 감도는 약하다. 더구나 짧은 순간이다. 남성의 시선도 여성의 뒤로 젖

혀진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세워진 자세이기 때문에 야하다는 느낌은 없다. 다른 피겨들은 대부분 이동하면서 추지만, 이 동작들은 이동하지 않고 하는 동작이다.

#### 7) 탱고(tango)

매혹적이면서 절도 있는 동작의 춤. 1880년 무렵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하층민 지역에서 생겨났다. “네 다리 사이의 예술”로 불리는 탱고는 어둡고 무거운 음색을 지닌 반도네온(Bandoneon)이 이끄는 강렬한 악센트의 음악, 열정적인 눈빛을 마주한 채 엮어 가는 탱게로 Tangueros). 2/4박자의 춤이다. 이는 보통 남녀가 서로 가슴과 가슴이 맞닿고, 상체가 붙어져 기대는 듯한 포즈로 춤을 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열과 감성을 표현하는 춤으로, 즉흥적으로 리드와 팔로우를 하면서 다양한 발동작을 구사하는 춤이다.

탱고 춤의 형태는 콘티넨탈 탱고, 에세나리오, 피스타, 누에보 탱고 등 다양한 스타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춤으로, 많은 공연과 대회가 열리고 있다.

#### 8) 퀵 스텝(quick step)

모던댄스의 한 종류로, 윈스텝과 폭스트로트의 혼합으로 발전한 춤이다. 빠른 템포의 음악에 맞춰 흥겹고 경쾌하고 스피드 있게 추는 4/4박자의 춤이며 Quick Step은 캐슬웨크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경쾌한 댄스며 1920년대 미국에서 유행하였다. 이 퀵스텝의 기초는 블루스의 워크와 샹세(Chasse)에 근간을 두고 있으나, 대체로 월츠와 폭스트로트의 혼합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퀵스텝의 기본적 피겨는 워크와 샹세로 구성되어 있는 쿼터 턴즈(Quarter Turns)이다. 퀵스텝의 슬로우는 2박이며, 퀵은 1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퀵 앤 라이즈가 수반되는 것이 보편적이고 또한 피겨의 제1보의 슬로우에선 down되나, 진행하는 샹세나 Lock스텝 또는 오픈피니쉬 및 런닝피니쉬 의 마지막 스텝 앞의 슬로우스텝에서는 up이므로 항상 Toe로 스텝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회전 또는 옆으로 진행하는 피겨에 샹세가 적용되나 앞 또는 뒤로 진행할 때는 샹세 대신에 Lock스텝을 사용한다. 이 춤은 영국의 I.S.T.D.에서 1924년부터 1948년까지 24년의 세월 동안 이의 학술적 이론과 기술적 확립을 정립하여 세계댄스

(I.C.B.D.), 댄스스포츠 평의회와 국제댄스스포츠연맹에서도 모던 볼룸의 5종목 중 하나로 경기종목에 채택하고 있다.

#### 9) 폭스트롯(fox-trot)

모던 댄스의 한 장르로 동작이 모나지 않도록 움직임, 느린 음악이 특징인 4/4박자의 춤이다. 영국의 귀족 댄스로 동작의 끊어짐이 없이 부드럽게 트리 스텝으로 이루어진 댄스이며 월츠와 비슷하게 매끄럽고 우아한 춤이지만 매끄럽고 진보적인 댄스로 댄스 플로어를 가로질러 길고 연속적인 움직임을 특징으로 하는 춤이다. 빅 밴드 음악에 맞춰 춤을 춘다. 리듬은 3/4 대신 4/4 박자 기호이지만 춤은 월츠와 비슷하다. 1910년대에 개발된 폭스트롯은 1930년대에 인기를 얻었으며 오늘날에도 실용화되고 있다.

#### 10) 비에니즈 월츠(viennese waltz)

라인을 따라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추는 4/3 박자의 춤이다. 월츠와 같으나 속도를 빠르게 하는 댄스이다. 이 춤의 발생 기원은 오스트리아에서 독일의 알프스지방의 오랜 전통에 뿌리를 두고 강한 민속무용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 클로즈드 홀드를 한 상태에서 연속 회전만을 3박자의 음악에 주로 맞추어 추는 이 춤은 다양한 이름으로 수백 년 동안 전래 되어왔다. 원무인 이 춤의 명칭은 스피너(spinner: 실 감는 기계 또는 휠러 wheeler: 큰수레 바퀴)등으로 묘사한 것이 그 좋은 예이다. 그러나 19세기 중에 '요한 스트라우스월츠'가 유행함에 따라서 오늘날 이 춤을 '비엔나 월츠'라고 한다. 내츄럴 턴와 리버스 턴 등의 진행성 회전운동은 훗날 프랑스의 7월 대혁명(1789년)으로 루이 왕조의 몰락과 함께 특권계층의 춤인 군무의 궁중무도가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거쳐 대중화되면서 거리의 술집 등지에서 추어진 비엔나 월츠가 상류사회의 넓은 무도장으로 옮겨가 되어 오늘날의 형태인 남녀1조의 완전한 사교무도로 발전되었다. 또 요한스트라우스 월츠의 유행과 함께 경쾌함을 좋아하는 비엔나 사람들의 기질은 비엔나월츠 음악의 템포를 점차 빠르게 연주하여 각 스텝의 악센트를 강조하는 춤이 되었다.

#### 2.4 서양 춤 Dance Sports의 특성

서양 춤 Dance Sports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건강에 좋은 스포츠이며 레크리에이션으로 즐길 수 있다. 반면에 점점 숙달되어 초보적 수준에서 상급의 수준에 이르게 될수록 체력과 고도의 기술 그리고 파트너와의 조화를 요하는 것이 댄스스포츠의 특징이다. 댄스스포츠는 댄스의 특성과 스포츠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댄스스포츠는 예술성이 풍부한 실내 스포츠인 동시에 생활체육의 한 분야로 정의되고, 댄스스포츠의 본질은 전통에 의한 예의와 질서로 이루어진 도덕적 가치관을 지닌 인격 표현의 선진형 유희문화라고 알려져 있다.

#### 2.4.1 스포츠적 특성

댄스스포츠는 예술성보다는 스포츠성이 강하고 기계공학적 요소보다는 생체역학적 요소가 많으며 흥행적 효과보다는 교육적 효과가 큰 올림픽 스포츠로서의 특성을 갖추고 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이 체육을 통한 국민의 체력 향상과 스포츠를 통한 국제간 친선 도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각종 국제 경기대회와 올림픽 경기에 참가하여 체육적 역량과 문화적 역량을 총체적으로 경쟁하는 포츠적 특성이 있다.

#### 2.4.2 예술적 특성

춤은 인간의 움직임의 욕구에서 발생하였으며 가장 원초적인 욕구에서부터 우리나라는 단순한 신체적 움직임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움직임의 예술인 춤은 종합 예술이며, 음악은 시간 속에 존재하고 미술은 공간 속에 존재한다. 그러나 춤은 시간과 공간의 합일의 상태에서 만 존재할 수 있다.

댄스스포츠는 1인 댄스(solo dance)가 아닌 커플 댄스(couple dance)라는 형식상 특성을 갖게 되며 아름다운 움직임을 연출하기 위하여 남녀가 상호이해와 협동의 정신으로 훌륭한 파트너십(partnership)을 발휘해야 하는 특성을 갖는 동시에 춤을 추는 과정에서 신체의 일부가 서로 접촉해야 하는 터치댄스(touching dance)의 특징을 갖고 있기도 한다.

#### 2.4.3 댄스스포츠의 운동기능 • 생리학적 특성

##### 1) 운동기능의 특성

댄스스포츠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 • 하체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전진, 후진, 회전으로 구성되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평행성이다. 그러므로 춤을

추면서 여러 가지 근육을 움직여 자연스럽게 자세 교정과 체력이 증진된다. 즉 댄스스포츠의 기술과 동작은 주로 전진, 후진, 회전으로 구성되며 기본 움직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평행성 이기 때문입니다. 남녀가 서로 자기중심을 잡고 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공간에서 커플의 중심축을 이동하게 되므로 운동 기능적 측면에서 평행성을 길러주는데 매우 적합한 신체활동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동시에 남녀가 서로 반대되는 전진과 후진 워크(walk)를 반복함으로써 다리 근육을 골고루 발달시켜주는 자세 교정 및 체력증진의 특성을 갖기도 한다. 특별히 운동기능을 왈츠(Waltz)에서 더 찾아보면 왈츠의 스텝은 절반은 뒤꿈치 드는 스텝이다. '라이즈 앤드 폴링(Rising and Falling)'이라고 해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며 추는 춤이다. 하체 강화 효과가 탁월하다. 춤이 아니더라도 이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건강 상식이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다. 단순히 그 동작을 반복하라고 하면 지루해서 못 한다. 그러나 음악에 맞춰 저절로 라이즈 앤 폴링이 된다면 운동 효과도 대단한 것이다. 때문에 밸런스가 향상되고, 순환기가 좋아지며, 왈츠 스텝 자체가 걸음의 기본이 되어 실생활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건강 춤이다. 또 왈츠의 기본 자세는 '업 라이트(Upright)'다. 고개를 바짝 들고 몸을 직립으로 세워서 우아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는 자세다. 마치 위에서 머리 꼭대기를 실로 매달아 놓은 자세다. 이 자세는 우리 몸의 기혈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자세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목이 앞으로 굽은 사람이 많지만, 나이가 들면 고개는 물론, 어깨, 허리까지 앞으로 굽어진 사람들이 많다. 우리 몸의 혈액순환은 구겨진 상태보다는 짝 펴진 상태라야 왕성해진다. 하루종일 별로 한 일도 없는데 등이 결리고 온몸이 쭈신다는 사람은 볼링공 하나의 무게와 비슷한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자신도 모르게 목 근육으로 버티지 못하니 어깨 근육, 그리고 허리 근육까지 당겨졌기 때문이다. 왈츠를 배우고 나면 이런 증상부터 사라진다.

##### 2) 생리학적 특성

댄스스포츠는 근력의 발달뿐만 아니라 심폐기능의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독일후라이버그대학의 연구팀은 1986년 올림픽 800m 중거리 선수, 사이클 선수, 수영 선수와 댄스스포츠

즈 선수간의 근력과 호흡률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이들 선수들 간에 근력과 심폐기능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댄스스포츠를 생활체육의 한 분야라고 볼 때 운동 강도와 운동 시간적 측면에서 일반인에게 우수한 유산소운동 프로그램이 된다. 유산소운동은 심폐지구력을 강화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 시키며 탄력 있는 몸매를 유지할 뿐 아니라 노화를 방지하고 성인병도 예방할 수 있는 운동 생리학적 특성이 있으며 또 신나고 빠른 리듬에 맞춰 춤을 추고 음악에 스텝을 밟으면 그 어떤 운동보다 효과가 더 좋다고 할 수 있는 다이어트 효과도 있다.

### 3) 레크레이션적 특성

댄스스포츠는 스포츠적인 요소에 예술성을 합쳐 음악에 맞춰 항상 춤을 추는 레크레이션적 특성이 있다. 이는 오늘날 경제적 풍요와 증대된 생활의 윤택함과 그리고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말미암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문화적 움직임이 팽배 되어 여가 문화로의 가치 활용인 레크레이션으로 그 가치를 높이고 있다.

춤을 추기 위해서는 간단한 스텝을 계속 배워가며 익히기 되어 있기에 현대사회에서 오는 정신적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줄 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게 해주기에 또 이성간의 건전한 만남과 사교를 위한 활동으로 매우 적합하며, 음악과 리듬과 일치감을 느끼면서 움직임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게 해주어 레크레이션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III. 서양 춤(Dance Sports, 사교 Dance)

### 한국사회의 사적(史的) 경로 과정의 사회상

#### 3.1 1950년대 이전

우리나라에 볼룸댄스가 소개된 것은 구한말 고종황제가 러시아 공사 웨베르의 요청으로 약 1년간 파견하고 계실 당시 웨베르 부인으로부터 왈츠를 배우게 된 것이 최초였다고 한다. 또한 1890년 경에 이하영이 미국 공사 게임 시 보스턴 왈츠(Boston Waltz)라는 멋진 춤을 추었다는 기록도 있으며 귀국 후에도 서울 종로에 있는 손탁호텔에서 샴페인을 들며 소셜 댄스를 즐겼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일반인들이 서양식 댄스

를 처음 추기 시작한 것은 1905년 청국 공관이 개최한 무도회로 1926년 신 무용이 도입되기 이전까지는 서양의 음악과 춤이 무도대회란 이름만으로 소개되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1910~1945)에는 일본이나 외국에 유학을 하고 온 일부 유학생들이 서양식 댄스를 추었다. 새로운 생활방식을 나타내는 서양풍의 사교댄스를 문화인답게 슬기롭게 배워 하나의 여가 선용을 위한 스포츠로서 배워야 한다는 지각이 일어난 것이다.

이후 1945년 일제강점기에서 해방과 함께 1948년 정부 수립 후 미군정시대에 미군들에 의해서 서양 춤(Dance Sports, 사교 Dance)이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 보급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댄스에 대해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반응이 댄스홀 ‘춤바람’이란 말이다.

대개 ‘춤바람’이 났다고 하면 서양 춤(Dance Sports, 사교 Dance) 댄스홀 때문에 춤으로 인하여 춤이 원인이 돼서 남녀가 부적절한 관계에 빠지게 되었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춤’ 하면 곧 ‘서양 춤바람’으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불행하고 어두웠던 사교춤의 역사와 관련된다.

#### 3.2 1950년대 이후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미군들에 의해 사교댄스(Social Dance)가 들어왔다. 미군 댄스파티는 낙랑클럽에서 시작이 되었다. 국가의 외교적 정치 수단과 당시 상류층의 사교 목적으로 주로 정부 관료 및 상류층의 중심의 파티 문화도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정부에서도 유엔군 장병들의 노고를 다소나마 위안한다는 취지에서 유엔군 전용 댄스홀을 인정하였고, 유엔군의 일을 돕는 일부 한국인들이 유엔군 장병을 초청하여 댄스홀에 가는 경우 별다른 출입을 막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취지와 달리 미군 부대 서양 춤 댄스홀 참가자 중에서 일부 매춘행위도 이루어졌다. 이런 미군 부대 댄스홀에 출입했던 여성들은 양공주들뿐 아니라 가정주부와 처녀들도 출입이 빈번했다.

이 후 한국 사회에 서양 문화가 급속도로 도입되면서 서양 춤이 사회적 안착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도 발생이 되었다.

1949년 11월엔 교수와 여학생이 같이 댄스 교습을 받다 적발되기도 했고 1950년 3월엔 ‘풍기 취체 주간’까

지 만들어 단속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1954년 1월 1일부터 대한매일신문(구 서울신문)에 작가 정비석이 연재한 소설 자유부인은 대학교수 부인과 대학생과의 춤바람을 소재로 하였는데 당시 사회에 문화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격렬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그로부터 1년 남짓 후인 1955년 6월에는 이른바 '박인수 사건'이 터졌다. 박인수라는 청년이 해군 장교를 사칭하고 댄스홀을 돌며 여대생을 포함한 여명의 70여인을 농락했다는 사건이다.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춤바람'이란 유행어가 만들어지고 사교댄스와 댄스홀은 불륜과 퇴폐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이후에도 1959년에 일어난 전 부흥부 차관 부인(53세)이 젊은 댄스 교사(37세)와 벌인 간통 사건 등 댄스를 도저히 긍정적으로 볼 수 없게끔 만드는 사건들이 계속 터져 나왔고 언론은 사건의 흥미성 때문에 이를 대서특필하곤 했기에 서양 춤(Social Dance)은 곧 춤바람이란 인식은 더욱 확고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상(時代相)에서 1961년 5·16 군사 정권은 민심을 얻기 위해 사회악 일소라는 이름으로 애꿎게도 댄스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하였는데, 이때 사회악으로 낙인찍힌 댄스는 단속을 넘어 소탕의 대상이 되었다.

정부는 미군이 출입하는 댄스홀이 되는 금지시켰다. 이에 비밀스럽게 댄스를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당국은 이를 단속하기에 이르렀다. 한편으로는 춤을 추고 싶어도 마음 놓고 출수 있는 공간이 없어 슬퍼했고 오해와 악의로 가득 찬 사회의 시선이 서러웠으며 그럼에도 춤을 추고 싶은 마음만을 어찌지 못해 괴로운 시절이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와 정부의 무차별적인 탄압은 밝은 곳에서 건전하게 발전해야 할 서양 춤(Social Dance)은 더욱 어두운 곳으로 몰아넣어 한국 사교춤 문화를 변질시키고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렇게 악화된 서양 춤(Social Dance)의 이미지는 설상가상으로 1970년대 들어 제비족의 등장으로 치명상을 입게 된다.

1970년대 중동에 과건되어 외화벌이로 나선 해외 근로자의 부인들이 카바레에서 춤을 추다 제비족에게 농락당하여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파탄이 난 일들이 발생하여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 되었다. 이러한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였고 대중들의 머릿속에 댄

스는 퇴폐의 온상으로서 가정주부의 탈선을 조장하고 가정파탄을 야기하는 주범이라는 인식을 더욱 선명하게 각인시켜주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대중들은 이런 심의와 정부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비밀스런 장소에서 암묵적으로 사교댄스를 추며 요리 집과 카바레 등에서 지속적으로 사교댄스가 성행이 되었다.

#### IV. 서양 춤(Dance Sports, 사교 Dance) 한국사회의 근대적 안착과 영향

##### 4.1 한국사회의 근대적 안착

서양 춤(Social Dance)의 시대적 불운을 맞이한 가운데서도 한편으로는 댄스스포츠(Dance Sports)의 발전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다. 일부 지각 있는 지도자들은 영국에 유학한 경력과 또 많은 국제 모임이나 세미나에 참석한 경험을 가지고 1959년에는 한국일보를 주최로 한 무도 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선수권대회를 개최해 나갔다.

1970년에 한국무도교육협회를 설립하였으며 또한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댄스스포츠 국제기구인 WD&DSC(댄스스포츠평의회)와 독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IDSF(국제댄스스포츠연합회)에 가입을 추진하며 선진국과의 교류를 이어나갔다.

1988년 Olympic Youth Camp에서 주최국으로써 댄스스포츠의 경연 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업적을 쌓아가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서양 춤(Dance Sports 사교 Dance)이 정착 번성 되었다.

또 1990년에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고 불합리한 법적 규제의 울타리를 벗어나진 못하였지만 댄스스포츠 변화의 시발점이 되었다.

1990년대 중반을 넘어 현대사회의 발전에 따라 시민들의 인식도 변화에 따른 댄스스포츠 '붐'이 일게 되면서 생활 스포츠, 경기스포츠에 발전에 대한 공론이 조성되기 시작하였으며 TV 프로그램, TV 광고, 영화, 비디오, 공연 등에서 소재로 각광 받으며 일대 전기를 맞게 되었다.

1990년에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991년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령" 제정을 계기로 무도학원의 양성화 노력이 시작됐으며 1998년에는 방콕 아시안

댄스 스포츠 경기에 심사위원을 파견했습니다.

2000년대 접어서 댄스스포츠는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발전해 나가게 되며 댄스스포츠를 주제로 한 TV 프로그램이 국민적 사랑을 받으며 인기리에 방영되는 등 댄스스포츠의 인식과 위상은 드높아졌으며 댄스스포츠의 다양한 특성과 효과가 검증되면서 전국 초·중·고·대학교에서 특기 적성 교육과 자율 재량 학습, 방과 후 수업 또는 교양 과목과 전공과목으로 채택되어 교육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의 교육프로그램으로 까지 활용되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또한 생활 동호인이 13만 명으로 증가, 전 연령을 아우르는 생활 스포츠가 되었으며 대한체육회 정식 가맹단체로 승인을 받으며 전국체전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는 쾌거를 이룩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아시안게임에서 은 7개 동 3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아시아 댄스스포츠 강국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올림픽 시범종목으로써 정식 종목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이후 댄스스포츠는 빠르게 전파돼 허가받은 댄스스포츠 학원만 2,000곳이 넘게 되었으며 아울러 매주 전국에서 댄스스포츠 대회가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다. 현재 댄스스포츠는 대중화가 되어 각 시도의 구청과 동사무소, 그리고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댄스스포츠를 가르치지 않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이고 전국 대학의 전공과목이나 특기생 교양과목으로 필수조건이 되었습니다.

서양 춤(Dance Sports, 사교 Dance)을 조금이라도 접해본 인구는 500만 명에 이르고 수준급 댄서는 약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4.2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

한국사회에서 서양 춤(Dance Sports, 사교 Dance)이 주었던 영향은 다양합니다. 1880년대 후반부터 댄스스포츠는 한국사회의 일부 계층(상류층)에 의해 사교댄스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1940년대 중반 이후, 남자가 유별난 유교문화를 가진 한국사회의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사회악으로 낙인찍힌 서양 춤(Dance Sports, Social Dance)은 당시 군부정권에 의해 무차별 탄압을 받게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 댄스스포츠는 관련 법개정을 시작으로 사회 다방면에서 발전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를 지나며 댄스스포츠는 하나의 스포츠와 문화로써 인정받으며 우리 한국 사회에 자리 잡게 되었다.

첫째로 서양 춤(Dance Sports)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댄스스포츠는 신체의 균형감, 유연성, 근력, 심폐기능 등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 해소와 긴장의 이완, 자아 표현력과 자신감, 창의력과 예술성 등을 증진 시킵니다. 또한, 댄스스포츠는 다양한 연령층과 문화층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정중한 예의와 사교성을 배우고, 친교적 인간관계를 쌓을 수 있다.

둘째로 서양 춤(Dance Sports)은 한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과 발전에 기여했다.

댄스스포츠는 서양의 볼룸댄스와 라틴댄스를 기반으로 하지만, 한국의 전통 댄스나 현대댄스 등 다른 문화의 요소를 접목하거나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댄스스포츠는 국제적인 대회나 페스티벌 등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존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셋째로 서양 춤(Dance Sports)은 한국의 스포츠 산업과 교육에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댄스스포츠는 생활 스포츠로서 13만 동호인이 참여 중에 있으며, 전국 초·중·고·대학교에서 특기 적성 교육과 자율 재량 학습, 방과 후 수업 또는 교양 과목과 전공과목으로 채택되어 교육되고 있습니다. 댄스스포츠는 국내외의 유명한 선수나 강사를 배출하고, 다양한 댄스스포츠 관련 산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서양 춤(Dance Sports, 사교 Dance)이 주는 사회적 활동 의미는 연령과 성별의 제한이 없고 문화적 배경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정신적 긴장과 이기심을 제거해 주며 기쁨과 즐거움을 쇄신시켜주며, 편중된 자세와 작업의 무리에서 오는 신체적 장애를 교정해주며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여 이성간의 건전한 만남의 자리를 제공해줌으로써 여가시간의 활력소가 되는 생활예술의 하나이다.

## IV. 결론

서양 춤(Dance Sports, 사교 Dance)이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 유입된 것은 해방 이후 미군정이 시작되던

서부터이다. 미군들과의 사교적 목적에서 이들과 접촉이 빈번한 일부 계층에 의해 사교춤이라고 불리는 볼룸댄스가 도입되었던 것이다. 미군 군인들의 영향을 받아 서양 춤을 다른 문화의 경우와 같이 무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으며 자유당 시대를 거치면서 고위 장성급 모임에서는 사교 댄스파티가 건전하게 부부 동반으로 행해지곤 하였다. 오늘날에 왔서는 서양 춤(Dance Sports, 사교 Dance)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시민 건강 생활에 여가와 취미 힐링 등으로 건강한 레저스포츠(Leisure sports)로 대한민국 사회에 큰 힘이 되고 있으며 교육, 문화, 역사, 건강, 사교,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사회에서 버젓이 자리를 잡고 있다.

또 서양 춤(Dance Sports, 사교 Dance)이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주었던 Dance Sports는 체육으로 인정받아 전국체육대회의 정식 종목일 뿐 아니라 일부 대학교에서도 전공으로 석·박사 대학원 교육이 되었으며, 전세계적으로는 시드니 올림픽 때 시범종목까지 올라갔으나 정식 종목으로의 승격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 아울러 사교 Dance는 콜라텍이나 카바레에서 주로 추는 춤이 되었다. 카바레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콜라텍은 지역마다 있을 정도로 성업 중이라 잘 알려져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으로 문서화 된 기초자료들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서양 춤(Dance Sports, 사교 Dance)을 오래전부터 경험한 전문가들의 경험을 토대로 한 역사자료 편찬 및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서양 춤(Dance Sports, 사교 Dance)이 한국댄스스포츠 역사와 관련된 자료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한국 사회의 공헌도 기록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아 진다.

## References

[1]김영명, 김은희, 신주화, 이향림, 홍명엽, 댄스스포츠. 부산: 동아대학교출판부, 2003.  
 [2]김용재, 한국 댄스스포츠의 변천사, 2008.  
 [3]김해연, 한국 댄스스포츠 변천사: 국내 각 댄스스포츠 협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4]김청열 외1인, "An Analysis on Dance Sports Participants' Perceived Value for Sport Business Strategies", 로고스 경영연구 13(3), pp. 85-108, 2015.9.  
 [5]라온 댄스스포츠 학원, 댄스스포츠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서울 은평구, 2021.2.15.  
 [6]문보라, 신문의 댄스스포츠 보도 경향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석사학위 논문, 2011.  
 [7]박진규, 한국 사교춤의 변형발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8]송은정, 우리나라 사교댄스의 도입과 변천양상,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9]이경숙, 우리나라 댄스스포츠 담론에 관한 연구, 2012.  
 [10]양은심, 『초보자를 위한 댄스스포츠-라틴댄스』, 글 누림 출판사, 2010.  
 [11]장세형, "볼룸 댄스와 댄스스포츠 교육",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2.25.  
 [12]한경희 외4인, 『웰빙스포츠&댄스』, 과학 문화사, 2008.  
 [13]한국체육과학연구원, 『2011 한국 스포츠 총』, 한국체육과학연구원, 2011.  
 [14]한상호, 한국 댄스 스포츠의 성장과 발전에 관한 역사적 고찰, 디지털 융합복합연구, 한국디지털 정책학회, 2016.  
 [15]山本康正, 男と女の關係, 倉澤進, 川本勝編者, 社會學!の招待, ミネルヴァ書房, pp.47-48. 1992.  
 [16]A Historical Review of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Dance sport in Kore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53.  
 [17]Berger, B. & D. R. Owen(1988). "Stress Reduction and Mood Enhancement in Four  
 [18]D. C. Sin, "Dancesport academy-is it sports facility or educational facility?: A critical approach to the contradictions of dancesport academy business-related laws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s. Master.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2015.  
 [19]Exercise Modes: Swimming, Body Conditioning, Hatha Yoga and Fencing.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s 59, 148-159. 2004.  
 [20]H. W. Jo, "The Recognition and Activation Methods on Dance Sports". Korea Sport Society, Vol.2 No.1, pp.115-124, 2004.  
 [21]I. S. Lim, "The Consideration to a general Conception of Dance Sport". Officia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Vol.7 No.-, pp.61-72, 2003.  
 [22]I. Lee, "Study on Present Administrative Legislations of Dancesport Facilities and Future Improvement Plans.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en University, 2006.  
 [23]K. R. Kim, H. K. Shin, M. S. Kim, S. Y. Lee, "The Concept and Characterization of Dancesport and Its Popularization Measures". Philosophy of Movement, Vol.11 No.2,

- pp.355-373, 2003.
- [24]S. N. Song, History of Korean Dance, Keumgwang, 1989.
- [25]sikszenmihalyi, M.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New York: Harper & Row. 1990.
- [26]S. D. Ok, "The concept of dance sport clean and the direction to go forth. Master's dissertation", Kookmin University, 1998.
- [27]S. W. Lee, Dancesport, Keumgwang, 1998.
- [28]S. H. Lee, "The Activation Plan for the Sport for All through 'Dance Sports'. Master. dissert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12.
- [29]S. Y. Won, "The dance sport : in respect to the historical study. Master's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2001.
- [30]W. G. Ryu, "Current Situation and Improving Method of Domestic Dance Sports. Master.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2012.
- [31]경향신문: 1952, 1953, 1954, 1955, 1956, 1959
- [32]동아일보: 1905, 1947, 1950, 1952, 1955
- [33]서울신문: 1954
- [34]조선일보: 1921
- [35]여성 경제신문(<https://www.womaneconomy.co.kr>)
- [36]<http://www.naver.com>
- [37]<http://www.daum.net>